

역전이 행동 척도의 타당화 연구*

김 지 은[†]

조 성 호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역전이 행동 척도(Inventory of Countertransference Behavior)를 우리 실정에 맞게 번안하여 요인 구조를 확인하고 그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151명의 상담자들(남 24명, 여 127명, 전문가 38명, 준전문가 이하 112명)에게 역전이 행동 척도와 더불어 내현적 대인반응 척도, 역전이 관리능력 척도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역전이 행동 척도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Friedman과 Gels(2000)의 연구에서는 부정적 역전이 행동과 긍정적 역전이 행동의 2요인이 발견된 것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무관심/배척, 통제/훈계, 과잉지지 등 3개의 요인구조가 발견되었다. 세 요인들에 대한 상관관계와 문항들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무관심/배척과 통제/훈계를 부정적 역전이 행동으로 과잉지지를 긍정적 역전이 행동으로 볼 수 있었다. 역전이 행동 척도의 요인들에 대한 신뢰도는 비교적 만족할 만한 내적 일치도를 보였다. 역전이 행동 척도와 내현적 대인반응 척도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내담자에 대해 부정적으로 지각하고 부정적인 감정과 소망을 느낄수록 무관심/배척, 통제/훈계와 같은 부정적 역전이 행동이 증가하는 반면, 내담자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긍정적 감정과 소망을 많이 느낄수록 긍정적 역전이 행동인 과잉지지 행동이 증가하여 역전이 행동 척도에 의해 측정되는 외현적 역전이 행동과 내현적 역전이 반응 간에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담자의 상담경력, 연령, 학력, 역전이 관리 능력 등이 낮고 상담에 대한 전문성 또한 낮을 경우 역전이 행동 또한 더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드러나 역전이 행동 척도는 상담자의 경력과 전문성을 잘 변별해줄 수 있는 충분한 타당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가 지니는 의미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 타당화한 역전이 행동 척도의 활용방안과 본 연구의 제한점 등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주요어 : 역전이, 역전이 행동, 내현적 대인반응, 역전이 관리능력

* 본 연구는 2005년 가톨릭대학교 교비연구비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교신저자 : 김 지 은,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420-743)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역곡2동 산 43-1

Tel : 02-2164-4278, E-mail : jieun6608@hanmail.net

Freud(1910)가 역전이에 대해 처음 언급한 이후로, 역전이는 전이와 더불어 하나의 중요한 개념이자 현상으로서 상담 관계를 이해하는 핵심 요소로 인식되어 왔으며, 상담의 과정과 성과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변인 중의 하나로 여겨져 왔다(Gelso & Carter, 1994; Peabody & Gelso, 1982). 그러나 역전이라는 개념의 역사가 오래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역전이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많지 않다. 그것은 역전이를 경험적으로 연구하기가 용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역전이 연구의 최대 난제는 역전이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과 역전이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다.

Freud 이후로 역전이 개념은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일찍이 Kernberg(1965)는 Freud 이후 당시까지의 역전이 개념을 크게 고전적 접근과 전체적 접근으로 나눈바 있었고, 보다 최근에는 이 두 접근을 절충한 절충적 접근이 새로이 제시되었다. Freud(1910, 1912)의 고전적 접근에 따르면, 역전이는 내담자에 의해 유발된 상담자의 무의식적이고 신경증적인 갈등이나 감정으로 정의된다. 그리고 이 역전이 반응은 분석가의 심리적 맹점으로 작용하여 환자의 문제를 제대로 볼 수 없게 하므로 반드시 제거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다.

1940년대에 이르러 역전이의 개념은 점차 확대되어 '내담자에게 느끼는 상담자의 모든 정서적 반응'(Heimann, 1950)까지 포함하는 전체적 접근이 등장하였다. 역전이에 대한 고전적 입장이 역전이 반응을 내담자에 의해 유발된 상담자 자신의 무의식적인 욕구와 갈등에 국한시킨 반면, 전체주의적 입장에서는 역전이를 내담자에 대해 상담자가 지니는 모든 감정과 생각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Fromm-Reichmann, 1948; Heimann, 1950, 1960; Little,

1951; Winnicott, 1949). 이 입장에 따르면, 내담자에 대한 상담자의 모든 반응들은 중요하고, 상담자가 그러한 반응들을 잘 이해하고 다루기만 한다면, 상담자의 역전이 반응은 상담의 진행을 방해한다기보다는 내담자를 이해하는 매우 유용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체주의적 접근 역시 제한점을 지니는데, 그것은 역전이를 너무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정의하여 역전이의 고유한 의미나 성질을 제대로 포착 또는 반영하지 못한다는 제한점을 지니며, 상담자의 모든 반응을 내담자 문제와 연관시킴으로써 상담자 자신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개인내적 문제들이 은연중에 정당화되어 버린다는 문제점이 있다(Gelso & Hayes, 1998; Panken, 1981; Watkins, 1985).

이후 이 두 접근이 지니는 제한점을 극복하고자 절충적 접근이 새로이 제시되었는데, 이 접근의 대표적인 학자인 Gelso와 Hayes(1998), Panken(1981), 그리고 Watkins(1985) 등에 따르면, 상담자의 역전이 반응은 현실에 기반을 두고 내담자에게 보이는 반응이라기보다는 상담자 자신의 갈등과 욕구의 결과로 내담자에게 보이는 상담자의 반응으로 정의된다. 즉 절충적 접근에서는 고전적 접근과 마찬가지로 상담자의 문제에 다시 초점을 맞추었고, 상담자의 모든 감정 반응은 잘 관찰하고 이해하면 그것을 치료에 이용할 수 있다고 보는 점에서 전체주의적 입장의 유용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고전적 입장에서는 역전이를 무의식적인 것으로 보았지만 절충주의적 입장에서는 무의식적인 것으로만 한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역전이에 대해 경험적으로 접근하기 용이하게 한다.

이 절충적 입장의 역전이 개념에 따라 개발

된 역전이 측정도구로서, Friedman과 Gelso(2000)가 개발한 역전이 행동 척도(ICB: Inventory of Countertransference Behavior)가 있다. Friedman과 Gelso(2000) 이전에 역전이를 측정했던 선행 연구들을 보면, 상담 후 상담자의 자기 보고를 듣거나 지각적 왜곡, 불안, 회피와 같은 역전이 반응의 아주 부분적인 측면만을 측정하는 연구가 대부분이었다(예: Cutler, 1958; Peabody & Gelso, 1982; Yulis & Kiesler, 1968). 그런데 역전이는 상담자의 내현적 경험을 거쳐 외현적 행동으로 나타난다(Kiesler, 2001). Hayes와 Gelso(2001)는 역전이가 내적으로는 상담자의 다양한 생각과 감정의 형태로, 그리고 외적으로는 치료자의 다양한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다양하게 역전이 반응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불안이나 회피와 같이 한두 반응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 실제로 역전이가 발생했어도 포착하지 못할 수도 있고, 상담자의 감정, 사고, 행동 등으로 표현되는 역전이 반응들 간에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알 수 없다. 그러므로 역전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담자의 감정, 인지, 행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역전이 반응을 살펴봐야 하며, 감정이나 행동에서도 특정한 한 두 반응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포괄적으로 역전이 반응을 측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필요성에서 최근 내담자에 대한 지각, 감정, 소망과 같은 상담자의 내적인 반응들을 직접 측정할 수 있는 내현적 대인반응 척도가 개발되었다(김지은, 조성호, 2004). 그리고 역전이 행동을 좀 더 포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도구로서 Friedman과 Gelso(2000)는 역전이 행동 척도(Inventory of Countertransference Behavior)를 개발하였다.

현대의 많은 이론가들은 역전이 감정은 불

가피하고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것이며 반드시 치료 과정에 해롭지만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Gelso & Carter, 1994; Watkins, 1985). 그러나 이러한 감정을 상담자가 잘 인식하지 못하고 행동으로 나타내게 되면 치료에 방해가 될 가능성이 크다(Campbell & Browning, 1975; Caracena, 1965; Hayes, Riker & Ingram, 1997; Mennicke, Lent & Burgoyne, 1988; Vable, 1968). 이것이 역전이 행동이며, 상담자의 내적인 반응이나 역전이 감정과는 구별하여야 한다. 즉 상담자가 내담자에 대해 가지는 감정이나 생각은 자각하고 잘 이해하면 상담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도 있지만 역전이 행동은 상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므로 역전이를 연구함에 있어 역전이의 내현적 반응들과 역전이 행동은 구별하여 볼 필요가 있다.

앞서 기술했듯이 Friedman과 Gelso(2000)는 역전이에 대해 절충주의적 입장을 취하며, 역전이 행동을 상담자가 자신의 미해결된 문제를 통제하거나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 문제들이 회기내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이제까지의 역전이 행동 연구에서 회피나 철수 반응에 대한 측정만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지적하고 역전이 행동은 과도한 개입(overinvolvement)과 미흡한 개입(underinvolvement) 모두를 포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상담자의 미해결된 문제가 건드려졌을 때 불안해진 상담자가 회피반응을 보일 수도 있으나, 과도하게 말을 너무 많이 하거나, 지나치게 지지적으로 내담자를 대하여 자신에게 위협이 되는 상황을 피하려는 태도를 취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Friedman과 Gelso(2000)는 역전이 행동 척도의 예비문항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과도한 개입과 미흡한 개입 두 차원에서 예비척도를 구성하였다.

역전이 행동 척도의 예비 문항들(32문항)은 역전이 전문가들로부터 모두 충분한 안면타당도를 지니는 것으로 평가받았으며(안면타당도 평점평균 범위: 3.55-4.82), 이 중 모호하게 해석될 수 있는 한 문항을 제외하고 31문항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처음에 예상했던 과도한 개입과 미흡한 개입의 두 차원으로 나누어지지 않고 긍정적인 역전이 행동과 부정적인 역전이 행동의 두 요인이 나왔다. 그리하여 그들은 역전이 행동을 긍정적 역전이 행동과 부정적 역전이 행동으로 나누어 볼 것을 제안하였다.

긍정적인 역전이 행동은 지지적으로 보이지만 역시 상담자의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상담상황을 모호하게 만들고 의존적으로 만드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부적절하게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접근하는 방식들을 포함한다. 전이의 개념으로 보았을 때 긍정적인 역전이는 상담자가 사랑받고 싶거나 유능하게 지각되고 싶은 자기 자신의 욕구를 보이는 것이거나 또는 과거 상실했거나 충족되지 못한 것과 관련된 인지 도식이 활성화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하였다. 부정적인 역전이 행동은 별 하듯이 내담자를 대하고, 회피하는 반응을 하고, 공격적인 방식으로 상담자가 행동하는 것을 포함한다. 부정적인 역전이 행동도 갈등을 일으켰던 과거 관계가 상담관계에서 재활성화된 것이거나 상담자 자신의 욕구가 왜곡되어 나타나는 것을 반영한다고 하였다.

역전이 행동 척도의 내적 일치도는 전체 척도가 .83이고, 긍정적 역전이 행동과 부정적 역전이 행동 요인은 모두 .79로서 적절한 수준의 신뢰도를 보였다.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서 역전이 지표(Hayes, Riker & Ingram, 1997)와 역전이 관리능력과의 상관을 보았는데, 역

전이 지표와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r=.43, p<.001$), 역전이 관리능력과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r=-.62, p<.001$)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들으로써 역전이 행동 척도가 적절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지닌 것이 입증되었다. Friedman과 Gelso(2000)가 이 척도를 개발하기 이전에는 회피 반응과 같이 아주 부분적인 역전이 행동만을 측정하거나 역전이 지표(Hayes, Riker & Ingram, 1997)와 같이 회기 중에 상담자가 자신의 미해결된 갈등이나 역전이를 나타내는 정도를 단일 문항으로 물어보는 것이 전부였다. 그러나Friedman과 Gelso(2000)가 개발한 역전이 행동 척도로 인해 역전이 행동의 측정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다양한 역전이 행동의 측정이 가능해졌다. 그리고 이 척도는 2000년에 개발된 이후로 최근까지 역전이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활용되고 있어(예: 최명식, 2005; 황인호, 2004; Liegiéro & Gelso; 2002; Mohr, Gelso & Hill, 2005 등) 역전이 연구에서 활용도가 높은 도구라고 할 수 있다.

국내에서도 최근에 와서 역전이에 관한 관심과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 중에서 역전이 행동을 측정하기 위해서 Friedman과 Gelso(2000)가 개발한 역전이 행동 척도를 번안해서 사용한 연구들이 있는데(예: 윤정설, 2001; 최명식, 2005; 황인호, 2004), 이들 연구들에서 사용한 이 척도의 문항 일부가 부적절하게 번안된 부분이 있고 국내에서 타당화되지 않은 채 사용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 역전이 행동 척도를 타당화시켜 국내에서의 역전이 행동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역전이 행동 척도가 타당화되어 내현적 대인반응 척도와 함께 사용될 경우 역전이의 내현적 반응 및 외현적 행동까지 광범위하게 측정할 수 있게 되므로 역전이의 발생

과 영향에 대해 좀 더 전체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될 것이다.

역전이 행동과 관련된 선행 연구를 보면, 역전이 관리능력이 높은 상담자는 자신의 내적인 반응들을 효과적으로 처리하여 역전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연구들이 있다(Gelso, Fassinger, Gomez & Latts, 1995; Hayes et al., 1997; Peabody & Gelso, 1982). 그리고 상담자의 학위 및 상담 경험 등이 높을수록 역전이 관리능력이 더 높았다(신교숙, 2000; 장세미, 1999). 그러므로 경력이 많은 상담자는 역전이 관리능력이 높아서 자신의 역전이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고 역전이 행동을 덜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또 역전이 반응들은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Hayes & Gelso, 2001; Kiesler, 2001). 그리고 내현적 반응들과 외현적 반응들은 서로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연립되어 있다. Wagonr, Kiesler와 Schmidt(1995)가 제시한 대인관계적 순환모델에 따르면, A의 외현적 대인행동은 B의 내현적 경험(감정, 인지, 행동경향성 등)을 촉발하고 그것은 B의 외현적 대인행동으로 나타나며, B의 외현적 행동은 다시 A의 내현적 경험을 촉발한다. 상담에 있어서 상담자의 생각이나 느낌과 같은 내현적 반응들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금명자, 이장호, 1992). 감정과 사고 및 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상황과 사건에 대한 인지적 해석에 따라 감정이 결정되고, 특정한 감정은 특정한 행동경향성(action tendency)을 불러일으켜 행동을 촉진한다(Brenner, 1974; Lazarus, 1991). 예를 들면, 불안과 공포는 위협으로부터 도피하는 행동을 유발하고, 사랑과 수용의 감정은 애착과 보호 행동을 촉진한다(권석만, 2004). 이것을 상담상

황에서 상담자의 내현적 반응과 외현적 반응에 적용시켜 보면, 상담자가 내담자를 어떻게 지각하고 어떤 감정과 소망을 갖게 되는가에 따라 행동이 달라질 것이라 예상해볼 수 있다. 또 상담자의 반응을 크게 부정적 반응과 긍정적 반응으로 나누어 볼 때, 상담자가 부정적인 내현적 반응들을 가지게 되면 부정적 행동을 보일 것이고 긍정적인 내현적 반응들을 느꼈을 때는 긍정적인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클 것이라 유추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선행 연구들을 살펴볼 때, 역전이 행동과 상담자의 경력, 역전이 관리능력 및 내현적 반응들과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역전이 행동 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해볼 수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는 신뢰도와 타당도 등 적절한 심리 측정적 속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는 역전이 행동 척도(Friedman & Gelso, 2000)를 우리나라 상담자들을 대상으로 타당화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역전이 행동 척도를 번안하여 요인분석을 통해서 요인구조를 탐색해 보았다. 그리고 이 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서 전체주의적 역전이 개념에서의 내현적 역전이 반응으로 볼 수 있는 내현적 대인반응들과 역전이 행동들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또 역전이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담자 변인인 상담자의 상담경력, 연령, 학력 및 전문가 자격증 유무에 따라 역전이 행동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았다.

방 법

참여자 및 자료수집 절차

본 연구는 상담자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상담자 151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이들 중 남자가 24명(15.9%), 여자가 127명(84.1%)이었으며, 연령분포는 23세에서 55세의 범위였다(평균 34.07세, 표준편차 6.89). 상담자들의 학력분포를 보면, 석사과정부터 석사학위 소지자가 83명으로 전체 중 55%를 차지하고 박사과정부터 박사학위 소지자가 68명으로 전체 중 45%를 차지하였다. 소지한 자격증을 보면, 미소지자가 41명(27.2%), 준전문가에 해당하는 사람이 71명(47.0%), 전문가에 해당하는 사람이 38명(25.2%)이었다. 그리고 상담에 주로 사용하는 접근법을 복수선택하도록 했을 때, 질충주의가 가장 많았고(62.9%) 그 다음 인본주의(39.7%), 정신역동(29.1%), 인지치료(25.2%), 기타(9.3%), 행동주의(3.3%) 순이었다. 그리고 개인상담 경력은 평균 6.4년(9개월 - 20년 7개월)이었다.

상담자 230명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여 164부를 회수하였다. 상담자들은 역전이 관리능력에 관한 설문지를 작성하였고, 현재 진행 중이거나 최근에 종결한 상담사례 중에서 내담자에게 강한 감정(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을 느끼거나 상담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경험 또는 상담자 자신의 문제가 상담과정에 영향을 미쳤던 경험이 있는 사례를 하나 선택해서 내현적 대인반응 척도와 역전이 행동 척도에 응답하였다. 회수된 164명의 설문지 중 자료 분석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사례들은 제외되었다. 불성실하게 응답한 2명과 피험자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일관성 있는 답변을 했는지를 체크하기 위한 반복 문항에서 일관되게 반응하지 못한(3문항 중 2문항이상 비일관적인 반응을 보인) 5명의 자료를 제외하였다. 그리고 사회적 선의도(social desirability) 척도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회적 선의도가 높다고 할

수 있는 기준 점수가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역전이 행동 점수와 역전이 관리능력과의 상관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역전이 관리능력 및 역전이 행동 점수와 유의미한 상관은 보이지 않았다.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이는 경향이 큰 사람들의 자료를 분석에서 제외시키기 위해서 사회적 선의도 척도의 총점 13점 중 11점 이상인 6명의 자료는 제외하였다. 그리하여 수집한 164명의 자료 중 총 13명의 자료를 제외하고 151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도구

역전이 행동척도(Inventory of Counter-transference Behavior)

Friedman과 Gelso(2000)가 개발한 것으로, 총 21문항이며 5점 Likert 척도(0: 전혀 그렇지 않다, 4: 매우 그렇다)로 되어 있다. 이 척도는 긍정적인 역전이 행동과 부정적 역전이 행동의 두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척도들의 내적합치도는 .79이고 전체 검사의 내적 합치도는 .83이다.

이 척도가 국내에 번안되어 사용되기는 하였으나(윤정설, 2001), 한 문항이 누락되어 번역되지 않았고 또 번역하는 과정에서 사전적 의미로만 직역하여 부적절하게 번역된 문항도 있었다. 예를 들면, 상담 중에 내담자와 공모한 적이 있다(Colluded with the client in the session), 상담 중에 내담자가 다른 곳에 있는 것처럼 행동한 적이 있다(Behaved as if she or he were absent during the session), 내담자의 동기에 대해 부적절하게 질문한 적이 있다(Inappropriately questioned the client's motives during the session) 등과 같은 문항들이다. 이와

같은 문항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의미하는 것인지 모호하여 응답자마다 서로 다른 의미로 해석할 여지가 많다. **그리하여** 이 척도를 연구자와 상담 관련 교수 1인이 다시 번안하였다. 영어 원문의 문항 중 의미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개발자인 Friedman과 Gelso에게 문의하여 그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여 상담상황에서 일어나는 역전이 행동이 될 수 있도록 번안하였다. 번안함에 있어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기 보다는 상담자들이 자기보고식으로 응답하는데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서 부정적인 표현을 좀 더 완곡하게 표현하였다. 그런 다음 미국에서 7년 동안 거주한 경험이 있는 상담교수 1인으로부터 감수를 받았다.

내현적 대인반응 척도

이 척도는 김지은과 조성호(2004)가 개발한 것으로 대인지각, 대인감정, 대인소망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인지각에는 존중/지시, 불안정/무력, 지배, 거부, 순종, 친애, 건방/거만, 공격, 경계/회피, 우호/신뢰의 10개의 요인, 대인감정에는 혐오/분노, 수치/죄책감, 연민/동정, 자신감, 불안/난감, 두려움/무력감, 애정/기쁨/신뢰, 우울/질투심의 8가지 요인, 그리고 대인소망에는 보호/조력, 통제, 순종/의지, 독립, 저항, 인정·애정갈망, 성장/발전, 방어/회피, 공격/거부의 9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Likert 척도(0: 전혀 아니다, 4: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며, 대인지각 66문항, 대인감정 57문항, 대인소망 59문항 총 182문항이다. 대인지각, 대인감정, 대인 소망 각 요인들의 평균 신뢰도는 .87, .87, .85이다.

역전이 관리능력 질문지(CFI: Counter-transference Factors Inventory)

역전이 관리능력 질문지는 Van Wagoner, Gelso, Hayes와 Diemer(1991)가 개발한 것으로 국내에서는 장세미(1999)에 의해 번안되었다. 이 척도는 5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기통찰, 공감능력, 자기통합, 불안관리, 개념화기술 등 5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해 상담자로서 평소의 자신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5점 Likert 척도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Van Wagoner 등 (1991)은 전이 및 역전이에 대한 11명의 전문가들과 함께 이 척도에 대한 내용타당도와 안면 타당도를 평가 하였다. 이 검사의 내적 합치도는 .97이었으며, 각 하위 요인의 내적 합치도는 자기통찰 .91, 자기통합 .91, 공감능력 .92, 불안관리 .91, 개념화기술 .88이었다.

이 척도는 국내에서 본격적인 타당화 연구를 거친 것은 아니지만, 선행연구들(장세미, 1999; 최가희, 2002; 최명식, 2005)에서 신뢰도가 .93 - .96이었고, 본 연구에서도 .95로 매우 양호한 신뢰도를 보였다. 그리고 이 도구와 다른 변인들과의 관계를 살펴본 국내의 연구들(장세미, 1999; 최가희, 2002)의 결과들을 보면, 역전이 관리능력이 상담자의 경력 변인들에 따라 차이를 보였고, 역전이 관리능력에 따라 상태불안이나 내담자에 대한 인상형성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결과 등을 보여주고 있어 이 척도의 타당도를 간접적으로 시사해준다.

사회적 선회도 질문지

본 연구에서 상담자들은 다양한 역전이 관련 반응들과 역전이 관리 능력에 대한 질문지들에 자기보고식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상담자가 자신을 긍정적으로 나타내려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 사회적 선회도 질문지(SDS: Social Desirability

Scale)를 실시하였다. 사회적 선회도 질문지는 Marlowe와 Crowne(1961)의 사회적 선회도 척도 (Marlowe-Corwne social Desirability Scale: M-C SDS) 33개 문항을 단축형으로 구성한 13문항의 질문지이며, Reynolds(1980)에 의해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되었고, 금명자(1985)가 번안한 승인욕구 척도 속에 포함되어 있다. 번안 척도의 신뢰도는 .74이다(이주일, 1988에서 재인용). 응답자는 각 문항의 내용이 자신의 생각과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예/아니오’로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점수의 범위는 1-13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솔직한 자신을 표현한다기보다는 자신을 긍정적으로 나타내려함을 나타낸다.

분석방법

역전이 행동 척도의 요인구조를 알아보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 방법으로는 Friedman과 Gelso(2000)가 사용한 방법대로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사용하고 사각회전(oblique rotation, direct oblimin, $\delta = .3$)을 하였다. 사회과학에서의 측정은 고유 요인이 차지하는 부분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크므로 공통요인 분석이 더 바람직하나(이순목, 1994), 공통요인 분석과 주성분 분석의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고 선행 연구와의 결과 비교를 위해 주성분 분석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요인의 수는 누적분산비율과 스크리(Scree) 도표, 그리고 요인의 해석가능성을 함께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역전이 행동 척도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서 내현적 대인반응 척도와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상담자의 상담경력, 연령, 학력 및 전문가 자격증의 유무에 따라 두 집단으로 나누어서 역전이 행동의 차이를 t-검증으로 비교

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역전이 관리 능력과 역전이 행동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분석에 사용된 프로그램은 SPSS 11.0이다.

결 과

역전이 행동 척도의 요인구조

역전이 행동 척도의 요인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사용하여 요인의 수를 미리 지정하지 않고 요인을 추출한 결과, 고유치(eigenvalue) 1.0을 넘는 요인의 수는 5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추출된 요인들에 대한 스크리(Scree) 검사 결과를 보면(그림 1), 지수함수분포의 형태에서 크게 벗어나는 지점이 3번째 요인이어서 3요인의 가능성을 시사해주고 있고, 요인의 해석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3요인 모델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3개 요인에 소속된 문항들과 요인 부하량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3개 요인들은 각각의 문항들 의미의 공통점을 고려하여 명명하였는데, 요인 1은 내담자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다른 생각에 빠져 있거나 흠을 잡고 수용하지 않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무관심/배척’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2는 내담자에게 필요 이상으로 지지적이고 내담자가 하자는 대로 무조건 따르는 등과 같은 문항들이어서 ‘과잉지지’로 명명되었다. 요인 3의 문항들은 상담 중에 화제를 자주 바꾸고, 일방적으로 상담을 진행하며 내담자에게 훈계하고, 마음에 안드는 점을 이야기하는 등과 같은 행동들이어서 ‘통제/훈계’라고 명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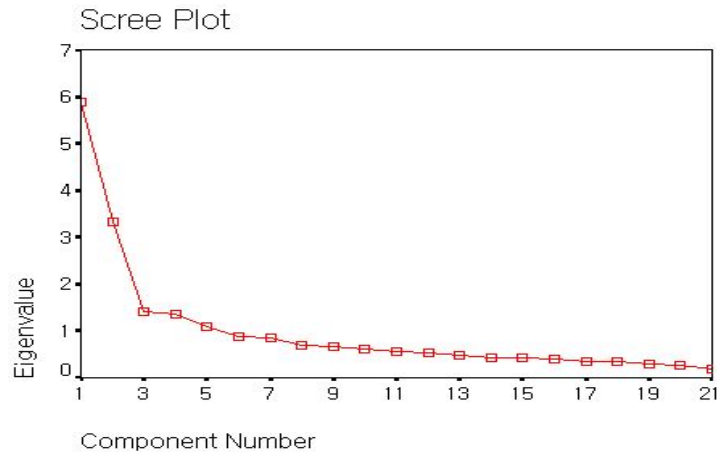


그림 1. 역전이 행동 척도의 스크리(Scree) 검사

표 1. 역전이 행동 척도의 요인명칭과 요인별 문항내용 및 요인부하량(Structure Matrix)

요인명칭	문항*	요인		
		1	2	3
무관심/ 배척	내담자의 말에 아랑곳없이 다른 생각에 빠져 있었다.	.772	.046	.312
	내담자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홀로 내버려 두었다.	.771	-.162	.151
	내담자의 의도나 동기에 대해 오해했다.	.682	.012	.364
	내담자를 수용하지 않았다.	.622	-.529	.468
	내담자의 흠을 잡았다.	.606	-.296	.406
	내담자에게 거리를 두었다.	.543	-.443	.340
과잉지지	내담자의 말에 너무 자주 수긍하고 동조하였다.	.026	.759	-.020
	내담자 편을 들었다.	.007	.749	.030
	내담자에게 필요이상으로 지지적이었다.	.097	.730	-.020
	내담자에게 차갑게 대했다.	.419	-.635	.467
	내담자를 책망하듯이 대하였다.	.555	-.628	.601
	내담자가 하자는 대로 무조건 따랐다.	.103	.492	-.245
통제/훈계	일방적으로 상담을 진행하였다	.334	-.088	.798
	내담자에게 훈계하는 듯한 어조로 이야기하였다.	.328	-.295	.766
	말을 너무 많이 하였다.	.283	.091	.640
	내담자에게 마음에 안드는 점을 이야기하였다.	.234	-.305	.536
	화제를 자주 바꾸었다.	.482	.186	.501

* 각 문항들 앞에는 공통적으로 “나는 상담시간에” 라는 표현이 들어감

표 2. 역전이 행동 척도 요인들의 문항수, 설명변량, 평균(SD), 문항-요인 상관 및 신뢰도(Cronbach α)

요인명칭	문항수	설명변량	누적변량	평균(SD)	평균상관 ¹⁾	Cronbach α
무관심/배척	6	27.96	27.96	7.19(3.88)	.70	.79
과잉지지	6	15.79	43.76	11.40(3.96)	.68	.77
혼계/통제	5	6.40	50.16	7.03(3.16)	.68	.70

¹⁾ 특정 요인에 소속된 문항점수와 요인점수간의 상관을 각 문항들에 걸쳐 평균한 것임.

역전이 행동 척도 각 요인들의 문항수, 설명변량, 문항-요인 상관, 신뢰도 등은 표 2에 나타나 있다. 역전이 행동 척도의 3개 요인들은 전체 변량의 50.16%를 설명하였으며, 각 요인들의 문항-요인 상관 평균은 .68 - .70으로 높게 나타났다. 역전이 행동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전체 .72였고, 각 하위요인별 내적 합치도는 무관심/배척 .79, 과잉지지 .77, 통제/혼계 .70인 것으로 대체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이로써 역전이 행동 척도의 각 요인에 소속된 문항들이 해당 요인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에는 역전이 행동 척도의 각 요인들 간 상관관계수가 제시되어 있다. 그 결과를 보면, 무관심/배척, 통제/혼계 요인들 간에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으며($r=.54, p<.01$), 과잉지지 요인은 무관심/배척, 통제/혼계 요인들과 부적의 상관관계가 있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보아 무관심/배척과 통제/혼계 요인은 서로 비슷한 성

표 3. 역전이 행동 척도의 요인 간 상관

요인명칭	무관심/배척	통제/혼계	과잉지지
무관심/배척	1.00		
통제/혼계	.54**	1.00	
과잉지지	-.41**	-.27**	1.00

** $p<.01$

질을 가지고 있고, 이 두 요인들과 과잉지지 요인과는 반대의 성질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각 요인에 포함된 문항들의 내용을 검토해보면, Friedman과 Gelso(2000)가 역전이 행동을 크게 부정적 역전이 행동과 긍정적 역전이 행동으로 나누는 바와 같이 무관심/배척과 통제/혼계 요인을 부정적 역전이 행동으로 과잉지지를 긍정적 역전이 행동으로 볼 수 있다.

다른 측정치들과의 관계

상담자의 경력 변인들과 역전이 행동과의 관계

경력이 많은 상담자일수록 역전이 행동을 덜 일으킨다는 것을 시사하는 연구들(예: 윤정설, 2001; 장세미, 1999; Williams, Judge, Jill, & Hoffman, 1997)에 비추어 봤을 때, 상담자의 경력이 많을수록 역전이 행동이 덜 일어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상담자의 상담경력, 전문가 자격증의 유무, 학력, 연령의 측면에서 역전이 행동을 비교하였다(표 4 참조). 먼저 상담경력에 따라 역전이 행동을 비교하기 위해서 상담자들의 상담 관련 경력을 개월 수로 계산한 다음 평균값을 구해서(평균: 76.24개월, SD: 56.80) 평균값을 기준으로 경력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나누어서 역전이 행동 점수를 비교하였다. 그 결

표 4. 상담자의 경력 변인들에 따른 역전이 행동의 차이

변 수	집 단	N	평균(SD)	t-값
역전이 행동 총점	상담경력저	86	26.51(5.89)	2.34*
	상담경력고	62	24.24(5.76)	
역전이 행동 총점	전문가	112	26.29(5.93)	2.57*
	준전문가 이하	38	23.50(5.31)	
역전이 행동 총점	학력저	83	26.98(6.00)	3.20**
	학력고	68	23.99(5.38)	
역전이 행동 총점	연령저	89	26.79(5.67)	2.96**
	연령고	62	23.97(5.86)	

* p<.05, ** p<.01

과, 상담경력이 많은 집단에 비해 상담경력이 적은 집단에서 역전이 행동 점수의 총점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다($t=2.34, p<.05$).

다음으로 상담자들이 소지한 자격증에 따라 크게 두 집단으로 나누었는데, 전문가(상담심리사 1급, 임상심리전문가, 청소년상담사 1급 등)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 집단과 준전문가와 초심상담자로 구성된 준전문가 이하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전문가 자격증 유무에 따른 역전이 행동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전문가 집단에 비해 준전문가 이하 집단의 경우에 역전이 행동 점수의 총점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다($t=2.57, p<.05$).

상담자의 학력과 역전이 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 상담자의 학력을 기준으로 두 집단으로 나누었는데, 학사부터 석사학위까지를 학력이 낮은 집단, 박사재학부터 박사학위까지를 학력이 높은 집단으로 하였다. 상담자의 학력에 따라 역전이 행동 점수를 비교한 결과, 학력이 높은 집단에 비해 학력이 낮은 집단에서 역전이 행동을 많이 보였다($t=3.20, p<.01$).

마지막으로, 상담자의 연령에 따라 역전이 행동을 비교하기 위해서, 상담자 연령의 평균 34.07세($SD=6.89$)를 기준으로 연령이 높은 집단과 연령이 낮은 집단으로 나누고 역전이 행동 점수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연령이 높은 집단에 비해 연령이 낮은 집단에서 역전이 행동 점수의 총점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다($t=2.96, p<.01$). 이상과 같은 결과들로 상담자의 경력이 높을수록 역전이 행동을 덜 보인다고 할 수 있고, 이러한 결과들은 역전이 행동 척도의 차별(discriminative) 타당도를 지지해주는 결과들이다.

내현적 대인반응 및 역전이 관리능력과 역전이 행동과의 관계

역전이 행동 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해 보기 위해서 내현적 대인반응 및 역전이 관리능력과 역전이 행동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내현적 대인반응 척도는 상호작용하고 있는 상대방에 대한 지각, 감정, 소망을 측정하는 도구로서, 내현적 대인반응 척도를 사용하여 내담

자에 대한 상담자의 내적 반응들을 측정한다면 전체적인 역전이 개념에서의 내현적 역전이 반응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내현적 역전이 반응과 외현적인 역전이 행동과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짐작해 볼 수 있다. 또 역전이 관리능력이 높은 상담자는 역전이 행동을 덜 보일 것이다(Gelso, Fassinger, Gomez & Latts, 1995; Hayes et al., 1997; Peabody & Gelso, 1982).

그런데 내현적 대인반응 척도의 대인지각, 대인감정, 대인소망에는 너무 많은 요인들이 있으므로 이 요인들 모두와 역전이 행동들과의 관련성을 보는 것은 너무 복잡하다. 그래서 각각의 요인들을 다시 상위 요인분석하여 성질이 비슷한 요인들끼리 묶어서 분석하였다. 내현적 대인반응 척도 중 대인지각은 존중/지지, 불안정/무력, 지배, 거부, 순종, 친애, 건방/거만, 공격, 경계/회피, 우호/신뢰의 10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요인들을 상위 요인분석한(주성분분석, 직교회전) 결과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인지각은 크게 2개의 요인으로 묶을 수 있는데, 공격, 지배, 건방/거만, 경계/회피, 거부와 같이 부정적으로 지각되는 요인 1, 친애, 우호/신뢰, 존중/지지, 순종과 같이 긍정적으로 지각되는 요인 2이다. 불안정/무력은 상위 요인분석에서 두 요인에 포함되지 않아서 제외되었다.

대인감정은 혐오/분노, 수치/죄책감, 연민/동정, 자신감, 불안/난감, 두려움/무력감, 애정/기쁨/신뢰, 우울/질투심의 8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인감정 요인들을 상위 요인분석한(주성분분석, 직교회전) 결과는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인감정 요인들은 크게 2개의 요인으로 묶을 수 있

표 5. 대인지각 요인들의 상위 요인분석 결과

지각 요인	상위 요인	
	1	2
공격	.908	-.198
지배	.880	-.007
건방/거만	.864	-.006
경계/회피	.749	.291
거부	.701	-.484
친애	-.001	.842
우호/신뢰	-.409	.832
존중/지지	-.124	.822
순종	-.005	.596

표 6. 대인감정 요인들의 상위 요인분석 결과

감정 요인	상위 요인	
	1	2
두려움/무력감	.906	-.140
우울/질투심	.895	-.138
불안/난감	.860	-.263
수치/죄책감	.783	-.001
혐오/분노	.733	-.389
애정/기쁨/신뢰	-.228	.887
자신감	-.167	.837
동정/연민	-.005	.558

는데, 혐오/분노, 수치/죄책감, 불안/난감, 두려움/무력감, 우울/질투심 같이 부정적 감정으로 구성되는 제 1요인, 애정/기쁨/신뢰, 연민/동정, 자신감과 같이 긍정적 감정으로 구성되는 제 2요인이다.

마지막으로, 대인소망은 상대방에게 어떻게 하고 싶다는 행동경향성(action tendency)을 받

표 7. 대인소망 요인들의 상위 요인분석 결과

소망 요인	상위 요인	
	1	2
저항	.909	.175
공격/거부	.902	-.004
방어/회피	.761	.397
통제	.756	.122
독립	.676	.562
순종/의지	.466	.451
인정 · 애정갈망	.255	.875
성장/발전	.144	.859
보호/조력	-.553	.645

영하는 것으로, 보호/조력, 통제, 순종/의지, 독립, 저항, 인정 · 애정갈망, 성장/발전, 방어/회피, 공격/거부의 9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인소망 요인들을 상위 요인분석한(주성분분석, 직교회전) 결과는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인소망 요인들은 크게 2개의 요인으로 묶을 수 있는데, 통제, 독립, 저항, 방어/회피, 순종/의지, 공격/거부와 같이 부정적 소망으로 구성되는 요인 1과 보호/조력, 인정 · 애정갈망, 성장/발전과 같이 긍정적 소망으로 구성되는 요인 2이다.

이상과 같은 결과들에 기초해서, 내현적 대인반응의 대인지각, 대인감정, 대인소망은 크게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내현적 대인반응과 역전이 행동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가 표 8에 제시되어 있다. 대인지각을 크게 부정적 지각, 긍정적 지각으로 나누어서 역전이 행동 요인들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내담자가 부정적으로 지각될수록 무관심/배척, 통제/훈계

와 같은 부정적 역전이 행동이 증가하고 긍정적 역전이 행동은 감소하며, 내담자가 긍정적으로 지각될수록 과잉지지하는 긍정적 역전이 행동이 증가하였다.

다음으로 대인감정을 부정적 감정, 긍정적 감정의 두 요인으로 보고, 이 두 요인들과 역전이 행동 요인들과의 상관관계를 본 결과를 보면, 내담자에게 부정적 감정을 많이 느낄수록 무관심/배척, 통제/훈계와 같은 부정적 역전이 행동이 증가하고 과잉지지하는 행동은 감소하였으며, 내담자에게 긍정적 감정을 많이 느낄수록 무관심/배척하는 부정적 역전이 행동은 감소하고 과잉지지하는 긍정적 역전이 행동이 증가하였다.

마지막으로, 대인소망을 크게 부정적 소망, 긍정적 소망의 두 요인으로 보고, 이 두 요인들과 역전이 행동 요인들과의 상관관계를 본 결과를 보면, 내담자에게 부정적 소망을 많이 가질수록 무관심/배척, 통제/훈계와 같은 부정적 역전이 행동이 증가하고 과잉지지하는 행동은 감소하였으며, 내담자에게 긍정적 소망을 많이 느낄수록 과잉지지하는 긍정적 역전이 행동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을 요약해보면, 내담자에 대해 부정적 지각, 부정적 감정, 부정적 소망을 많이 가질수록 부정적 역전이 행동이 증가하고 긍정적 역전이 행동은 감소하며, 내담자에 대해 긍정적 지각, 긍정적 감정, 긍정적 소망을 많이 느낄수록 과잉지지하는 긍정적 역전이 행동을 많이 보이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Friedman & Gelso, 2000), 역전이 관리능력이 높을수록 역전이 행동이 감소하므로 본 연구에서도 역전이 관리능력과 역전이 행동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표 8에 같이 제시하였다. 표 8을 보면

표 8. 내현적 대인 반응 및 역전이 관리능력과 역전이 행동 간의 상관

변인 \ 역전이행동	무관심/배척	통제/훈계	과잉지지 (긍정적 역전이행동)	부정적 역전이행동	역전이행동 총점
부정적 지각	.45 **	.29 **	-.37 **	.43 **	.21 *
긍정적 지각	-.08	.09	.31 **	-.01	.20 *
부정적 감정	.61 **	.46 **	-.36 **	.62 **	.41 **
긍정적 감정	-.22 **	-.07	.50 **	-.18 *	.15
부정적 소망	.63 **	.47 **	-.40 **	.63 **	.40 **
긍정적 소망	.10	.15	.40 **	.15	.43 **
역전이 관리능력	-.28 **	-.18 *	.08	-.25 **	-.23 **

* p<.05, ** p<.01

역전이 관리능력과 역전이 행동 간에는 대체로 부적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r=-.23, p<.01$). 역전이 행동 중에서 무관심/배척, 통제/훈계와 같은 부정적 역전이 행동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여주어, 역전이 관리능력이 높을수록 부정적인 역전이 행동을 덜 보인다고 볼 수 있다.

역전이 행동 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한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내현적 대인반응 척도의 대인지각, 대인감정, 대인소망 요인들에서 그 성격이 부정적인가 긍정적인가에 따라 역전이 행동도 부정적/긍정적 역전이 행동에서 차별적으로 서로 다른 상관관계를 보여 주었고, 상담자의 상담경력, 전문가 자격증 유무, 연령, 학력에 따라 역전이 행동에서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역전이 관리능력이 높을수록 역전이 행동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모두 역전이 행동 척도의 타당도를 지지해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Friedman과 Gelso(2000)가 개발한 역전이 행동 척도를 국내의 역전이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상담자들을 대상으로 타당화 하고자 하였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역전이 행동 척도를 번안하여 상담자들에게 실시하고 요인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무관심/배척, 통제/훈계, 과잉지지의 3개 요인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이 요인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무관심/배척과 통제/훈계는 정적상관을 보이고 이 두 요인들과 과잉지지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와 구성 문항들의 내용으로 미루어 무관심/배척과 통제/훈계를 부정적 역전이 행동으로 과잉지지를 긍정적 역전이 행동으로 묶어볼 수 있었다. 이것은 Friedman과 Gelso(2000)가 이 척도를 긍정적인 역전이 행동과 부정적인 역전이 행동의 두 하위척도로 구성한 것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 역전이 행동이 무관심/배척과 통제/훈계로 더 세분된 것이다. 부정적 역전이 행동 척도의 신뢰도를 보면, 역전이 행동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전체 .72이었고, 각 하위요인별 내적 합치

도는 무관심/배척 .79, 통제/훈계 .77, 과잉지지 .70으로 대체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역전이 행동 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내현적 대인반응 척도와의 상관관계를 보았다. 그 결과 내담자를 부정적으로 지각하고 부정적 감정과 부정적 소망을 많이 느낄수록 부정적 역전이 행동들이 증가하였으며, 내담자를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긍정적 감정과 긍정적 소망을 많이 느낄수록 긍정적 역전이 행동이 증가하였다. 이것은 내현적 역전이 반응으로 볼 수 있는 내담자에 대한 지각, 감정, 소망과 외현적 역전이 행동들이 서로 상응하는 관계를 보여주는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역전이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담자 변인들로서 상담자의 상담경력, 연령, 학력 및 전문가 자격증의 유무에 따라 역전이 행동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상담경력, 연령, 학력이 낮고 전문가가 아닌 집단에서 역전이 행동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역전이 관리능력과 역전이 행동도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이것은 역전이 행동 척도가 상담자의 경력과 전문성을 잘 변별해주는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들은 모두 역전이 행동 척도의 타당도를 입증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역전이 관리능력과 역전이 행동과의 상관관계에서, 역전이 관리능력과 부정적 역전이 행동은 부적인 상관을 보였지만 과잉지지하는 긍정적 역전이 행동과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이것은 상담자들이 부정적인 역전이가 발생했을 때는 관심을 기울이고 조심을 하지만 긍정적 역전이가 발생했을 때는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정보보다는 부정적인 정보에 더 주의를 기울이고 더 예민하

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Fiske, 1980). 또 상담에서 상담자들이 내담자에 대해서 긍정적인 느낌들을 갖고 격려하고 지지해주는 행동들은 일반적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긍정적 역전이는 내담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긍정적 감정과 긍정적 소망을 느끼고 과잉지지하는 행동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상담자들이 일반적으로 역전이라고 할 때 부정적 역전이를 주로 떠올리고, 긍정적 역전이에 대해서는 주의를 별로 기울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결과로 역전이 관리능력과 긍정적 역전이 행동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 관계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상담자의 역전이 관리능력과 역전이 행동과의 상관관계를 보면, 상관계수가 -.23 ($p < .01$)으로 Friedman과 Gelso(2000)의 연구에서 나온 상관계수 -.62($p < .001$)에 비하면 낮은 값을 보인다. 이것은 Friedman과 Gelso(2000)의 연구에서는 굳이 역전이가 발생한 사례가 아니더라도 최근의 사례에 대해서 이 척도들을 사용하여 분석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역전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 지표들을 제시하고 그 기준에 맞는 사례를 선정하여 응답하도록 함으로써 역전이가 발생한 사례들만 표집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아무리 유능한 상담자라도 때로는 역전이 반응을 보일 수 있다 (Peabody & Gelso, 1982; Pope & Tabachnick, 1993). 그러므로 역전이가 이미 발생한 사례들만을 표집했을 경우 역전이를 잘 관리하여 역전이 행동을 일으키지 않은 사례들은 제외될 가능성이 크고, 그 결과 역전이 관리능력과 역전이 행동과의 부적인 상관관계가 별로 높게 나오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역전이 관리능력과 역전이 행동 간에 부적 상관이 크게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역전이 관

리능력과 역전이 행동과의 부적 상관관계는 분명히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들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 변안한 역전이 행동 척도가 역전이 행동들을 신뢰롭고 타당하게 측정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역전이에 관한 경험적 연구를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역전이를 제대로 측정하지 못하는 점인 것을 감안한다면, 본 연구에서 타당화된 역전이 행동 척도는 국내에서 역전이와 관련된 연구를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17문항으로 구성된 역전이 행동 척도는 실시하기가 매우 간편해 실제적 유용성이 크리라 기대된다. 또 이미 개발된 내현적 대인반응 척도(김지은, 조성호, 2004)와 같이 사용한다면 내현적 역전이 반응과 외현적 역전이 행동을 모두 측정할 수 있으므로 상담자의 역전이 반응을 다각도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현적 역전이 반응과 외현적 역전이 반응이 상담과정과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볼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상담자들을 대상으로 역전이 행동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구하였다. 원래 Friedman과 Gelso(2000)가 이 척도를 개발할 때는 수퍼바이저가 평정하는 척도였다. 그럼에도 상담자들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척도를 타당화한 것은 그동안 국내의 연구에서(예: 윤정설, 2001; 최명식, 2005; 황인호, 2004) 이 척도를 상담자의 자기보고식으로 사용해 왔었고, 수퍼바이저가 평정하는 것보다는 상담자의 자기보고를 얻는 것이 연구절차에 있어서 훨씬 더 용이하기 때문이다. 또

100사례 이상의 다수 사례를 연구할 경우 수퍼바이저가 축어록이나 비디오 테이프를 보고 평정하는 방식은 실행하기 매우 어렵다. 그리고 선행연구에서(Hayes, Riker & Ingram, 1997), 역전이 행동에 대해 상담자가 평정한 것과 수퍼바이저가 평정한 것의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고 상관의 크기로 볼 때 오히려 상담자가 자신의 역전이 행동을 더 민감하게 알아차린다고도 볼 수 있었다. 그러므로 상담자가 자기보고식으로 이 척도에 응답하는 것이 더 큰 유용성을 지닌다. 그러나 이 척도를 자기보고식으로 사용함에 있어서 사회적 선의도(social desirability) 척도 등과 같이 사용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상담자가 솔직하게 이 척도에 응답하지 않을 가능성을 최대한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 척도를 수퍼바이저가 평정하는 방식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국내의 수퍼바이저들이 대부분 전문가 자격증을 소지한 상담자들임을 생각할 때 본 연구의 결과를 그대로 적용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여겨지지만, 수퍼바이저가 **상담 수련생의 상담 내용을 보면서** 평정할 때도 본 연구에서와 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추후 연구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제한점으로, 본 연구에서는 역전이 행동 척도를 타당화함에 있어서 역전이 행동과 상담성과와의 관련성을 살펴보지 못했다.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역전이 행동은 상담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Singer & Luborsky, 1977).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역전이 행동과 상담성과와의 관계를 알아봄으로써 역전이 행동 척도에 대한 타당화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권석만 (2004). *젊은이를 위한 인간관계의 심리학*, 서울: 학지사.
- 금명자 (1984). 내담자의 승인욕구와 상담자의 자기-공개가 내담자의 자기-공개에 미치는 효과.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금명자, 이장호 (1992). 상담참여(상담자와 내담자)의 내현적 과정에 관한 개관 연구: 상담과정 모델의 발달을 위한 모색.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4(1), 1-18.
- 김지은, 조성호 (2004). 내현적 대인반응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3), 407-434.
- 신교숙 (2000). 놀이치료자의 경력, 훈련경험 및 자의식과 역전이 관리능력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정설 (2001). 상담자의 성격 특성 및 경력이 역전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순목 (1994). 요인분석의 관행과 문제점.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7(1), 1-26.
- 이주일(1988). 이분척도와 Likert형 7점 척도의 신뢰도, 타당도, 반응 양식의 비교: 자기검색척도와 자기의식척도를 대상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세미 (1999). 상담자의 특성, 역전이 관리능력 및 상태불안과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명식 (2005). 역전이 활용 척도의 개발 및 타당도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황인호 (2004). 상담자의 자기효능감과 역전이 행동 및 상담협력관계가 상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Brenner, C. (1974). On the nature and development of affects: a unified theory. *Psychoanalytic Quarterly*, 43, 532-556.
- Campbell, C., & Browning, P. L. (1975). Therapists' approach and avoidance response and the verbal behavior of mentally retarded cli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2, 320-323.
- Caracena, P. (1965). Elicitation of dependency expressions in the initiate stage of psychotherap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12, 268-274.
- Cutler, R. L. (1958). Countertransference effects in psychotherapy,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22, 349-356.
- Dawis, R. V. (1987). Scale construc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4, 481-489.
- Fiske, S. T.(1980). Attention and weight in person perception: The impact of negative and extreme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8, 889-906.
- Freud, S. (1910). The Future Prospects of Psychoanalytic Therapy. Essential papers on Countertransference. New York and London: New York University Press, 1998.
- Freud, S. (1912). *Recommendation to Physicians Practicing Psychoanalysis*. S.E., 12, 111-120, London: Hogarth Press, 1953.
- Friedman, S., & Gelso, C. J. (2000). The development of the Inventory of Countertransference Behavior.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6, 1221-1235.
- Fromm-Reichmann, F. (1948). Notes on the development of treatment of schizophrenics by psychoanalytic psychotherapy. *Psychiatry*, 11,

- 263-273.
- Gelso, C. J., & Hayes, J. A. (1998). *The psychotherapy relationship: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New York: Wiley.
- Gelso, C. J., & Carter, J. A. (1994). Components of the psychotherapy relationship: Their interaction and unfolding during treatmen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1*, 296-306.
- Gelso, C. J., Fassinger, R. e., Gomez, M. J., & Latts, M. G. (1995). Countertransference management and therapy outcome: An initial evalu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2*, 356-364.
- Hayes, J. A., Riker, J. B., & Ingram, K. M. (1997). Countertransference behavior and management in brief counseling: A field study. *Psychotherapy Research, 7*, 145-154.
- Hayes, J. A., & Gelso, C. J. (2001). Clinical implications of research on countertransference: Science informing practice. *In session/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7*, 1041-1052.
- Heimann, P. (1950). On Countertransfer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31*, 81-84.
- Kiesler, D. J. (2001). Therapist countertransference: In search of common themes and empirical referents.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In Session, 57*, 1053-1063.
- Kernberg, O. (1965). Notes on countertransference. *Journal of American Psychoanalysis Association, 13*, 38-56.
- Lazarus, R. S. (1991). *Emotion and adapta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Liegiéro, D. P., & Gelso, C. J. (2002). Countertransference, attachment, and the working alliance: The therapist's contributions.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Practice, Training, 39*, 3-11.
- Little, M. (1951). Countertransference and the patient's response to it. *Journal of Psychoanalysis, 32*, 32-40.
- Marlowe, D., & Crowne, D. P. (1961). Social desirability and response to perceived situational demands.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25*(2), 109-115.
- Mennicke, S. A., Lent, R. W., & Burgoyne, K. L. (1988). Premature termination from university counseling centers: A review,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66*, 458-465.
- Mohr, J. J., Gelso, C. J., & Hill, C. E. (2005). Client and counselor trainee attachment as predictors of session evaluation and countertransference behavior in first counseling sess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3), 298-309.
- Panken, S. (1981). Countertransference reevaluated. *The Psychoanalytic Review, 68*, 24-44.
- Peabody, S. A., & Gelso, C. J. (1982). Countertransference and empathy: The complex relationship between two divergent concepts in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9*, 240-245.
- Pope, K. S., & Tabachnick, B. G. (1993). Therapists' anger, hate, fear and sexual feelings: National survey of therapist responses, client characteristics, critical events, formal complaints, and training.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 Practice, 24*, 142-152.
- Reynolds, W. M. (1982). Development of reliable and valid short forms of the Marlowe-Crowne Social Desirability Scale. *Journal of Consulting*

- and Counseling Psychology, 38(1)*, 119-125.
- Singer, B. A., & Luborsky, L. (1977). Countertransference: The status of clinical versus quantitative research. In A. S. Gurman & A. M. Razdin(Eds.), *Effective psychotherapy: Handbook of research* (pp. 433-451). New York: Pergamon Press.
- Stern, A. (1924). On the counter-transference in psychoanalysis. *Psychoanalysis Review, 11*, 166-174.
- Varble, D. (1968). Relationship between the therapists' approach-avoidance reactions to hostility and client behavior in therap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32*, 237-242.
- Van Wagoner, S. L., Gelso, C. J., Hayes, J. A., & Diemer, R. A. (1991). Countertransference and the reputedly excellent therapist. *Psychotherapy, 28*, 411-421.
- Wagnor, C. C., Kiesler, D. J., & Schmidt, J. A. (1995). Assessing the interpersonal transaction cycle: convergence of action and reaction interpersonal circumplex measur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5)*, 938-949.
- Watkins, C. E. (1985). Countertransference: Its impact on the counseling situation.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63*, 356-359.
- Williams, E. N., Judge, A. B., Hill, C. E., & Hoffman, M. A. (1997). Experiences of novice therapists in prepracticum: Trainees', clients', and supervisors' perceptions of therapists' personal reactions and management strategi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4(4)*, 390-399.
- Winnicott, D. W. (1949). Hate in the countertransfer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30*, 69-74.
- Yulis, S., & Kiesler, D. J. (1968). Countertransference response as a function of therapist anxiety and content of patient talk.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32*, 413-419.

원 고 접 수 일 : 2005. 8. 30

수정원고접수일 : 2005. 10. 13

게재결정일 : 2005. 11. 5

A Study of the Validity of the Inventory of Countertransference Behavior

Ji-Eun Kim

Seong-Ho Cho

Department of Psychology,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his study was attempted to translate the Inventory of Countertransference Behavior(ICB), and to validate the Korean version of the scale. 151 counselors completed ICB, Covert Interpersonal Reaction Inventory and Countertransference Factors Inventory. Factor analysis of ratings of 151 counselors of their counseling sessions revealed the existence of three factors. The factors were labeled as disinterest/expulsion, control/admonition, and excessive support. The total scale and each subscale demonstrated satisfactory internal consistency. Correlation analysis on the Covert Interpersonal Reaction Inventory and ICB indicated that covert countertransference responses and overt countertransference behaviors are closely related. And ICB discriminated counselors' career and expertness. The validity of ICB was found to be satisfactory. In addition, the practical usefulness of ICB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 countertransference, countertransference behavior, covert interpersonal reaction, countertransference management ability